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개발 및 타당화*

조 용 래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 교실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이론 및 실제에는 자동적 사고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공포증 내담자 및 대학생들이 발표불안을 경험하는 동안 떠올랐다고 보고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들로부터 83개 문항으로 된 예비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이 질문지에 대해 415명의 대학생들이 반응한 자료들을 두 번에 걸쳐 요인분석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32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는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등 3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합도 및 모델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대안적인 모델들과 비교할 때 3 요인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로 간주되었다. 연구 2에서는 척도개발집단과 277명의 다른 독립적인 집단간의 요인형태계수의 유사성을 평가한 일치계수가 3개의 요인 모두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3 요인모델의 교차타당도는 지지되었다. 반면에 4 요인모델은 4개 요인 중 2개 요인의 일치도 값이 높지 않아서 교차타당화되지 못했다. 이 질문지는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공존타당도, 구성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하였다. 그러므로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는 발표불안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들을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연구 및 치료에서 이 검사의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주위에서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 성인들 중 발표불안 (speech anxiety)¹⁾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혼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 용 래 /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588번지 501-717 / FAX : 062-225-3659 / E-mail : yrcho@mail.chosun.ac.kr

히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및 외국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의 약 20% 정도가 발표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용래, 원호택, 1997; Fremouw & Breitenstein, 1990). 뿐만 아니라, 사회공포증을 주 문제로 집단치료에 참가했던 내담자들은 여러 사회적 위협상황들 중 발표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대다수의 내담자들이 심한 발표불안을 호소하였다 (김은정, 1999; 조용래, 1998; Turner, Beidel, Dancu, & Keys, 1986;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정신병리의 발생, 지속 및 치료에 있어 '인지(cognition)'의 주된 원인적 역할을 가정하는 인지적 입장에서 발표불안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수많은 학자들이 인지이론 및 인지치료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lark, 1988; Heimberg, 1994; Zweig & Brown, 1985).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네가지로 구분되는 인지, 즉 인지적 구조, 인지적 과정, 인지적 산물 및 인지적 내용 중 특정한 정신병리 또는 심리적 장애는 주로 인지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적 사고 (automatic thoughts)와 역기능적 신념 (dysfunctional beliefs)을 분석하게 되면 해당 정신병리의 인지적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에 기초한 인지치료에서는 발표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및 역기능적 신념을 찾아내고, 현실검증한 후, 이를 현실적인 것으로 교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주된 치료작업이다 (조용래, 1998; Beck, Emery, & Greenberg, 1985).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이론적 연구와 인지치료에는 자동적 사고 및 역기능적 신념 등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

수적이라고 하겠다 (Clark, 1988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역기능적 신념은 상황의 다양성이나 가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념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에 개발된 사회불안 또는 사회공포증 일반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검사 (조용래, 원호택, 1999)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동적 사고는 특정한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인지로 간주되는 바, 이를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발표상황에 특정한 자동적 사고 질문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발표불안에 특정한 자동적 사고 질문지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조용래, 1998; Arnkoff & Glass, 1989; Fremouw & Breitenstein, 1990).

선행 연구들에서는 원래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SISST,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Glass, Murluzzi, Biever, & Larsen, 1982)를 발표상황에 맞추어 변형시켜 사용했거나 (Turner & Beidel, 1985; Turner, Beidel, & Larkin, 1986), 아니면 SISST의 30개 문항 중 16개는 그대로, 9개는 일부 개정한 후 포함시켰고, 거기에 5개를 추가하여 발표상황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Hofman & Roth, 1995). 그러나, SISST는 발표 동안에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에 적용할 수 없는 문항들이 여러개 있다는 지적이 있다 (Arnkoff & Glass, 1989). 실제로,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빈도는 상황변인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용래, 1998; Turner et al., 1986). 이에 더해, 사고 열거법 (thought listing)으로 측정된 자동적 사고 점수는 일반화된 사회공포증과 발표공포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Heimberg, Hope, Dodge, & Becker, 1990). 따라서 기존의 자동적 사고 검사를 변형시켜 발표상황에 적용할 경우 발표불안시에 흔히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이 검사 문항으

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발표불안이란 다수의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반응들을 말한다 (Fremouw & Breitenstein, 1990; Paul, 1966).

로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는 등 내용타당도가 미흡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서 상황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발표상황에 맞는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질문지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표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의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장애에 대한 인지이론 (Beck et al., 1985; Ingram & Kendall, 1987)을 살펴보자. 이 이론은, 원래 인지도식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동적 사고가 정보의 입력과 함께 인지적 구조, 인지적 명제 및 인지적 과정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인지, 즉 일종의 인지적 산물이라는 점 (Ingram & Kendall, 1986)에서,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Ingram과 Kendall (1987)에 따르면, 도식 (schema)의 구조적 양상들은 여러 심리적 장애들간에 매우 유사할 수 있는데 비해, '불안 도식 (anxious schema)'은 불안한 사람들이 뚜렷한 명제를 표상하는 도식을 갖는 정도 만큼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Beck 등 (1985)은 불안장애에 내포된 인지적 명제들은 개인에 대한 위험 (danger) 또는 상해 (harm)라는 주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Ingram과 Kendall (1987)은 이러한 위험의 원천이 불안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불안의 경우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공포는 주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각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이론적 견해들을 다시 정리하면, 불안장애의 인지적 내용은 적어도 두가지 불안관련 도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평상적인 조건에서는 자기 (self)와 관련된 명제들로 이루어진 도식이 작용하는데 비해, 위협적 혹은 위험한 것으로 지각된 상황에서는 외부적 혹은 내부적 위협단서들의 처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도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를 사회불안에 적용시키면, 사회적으로 각성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와 관련된 특질들 중 불안을 야기케 하는 특질들을 정의하는 도식이 주로 작용하지만, 사회적으로 각성된 상황에 당

면하게 되면 타인의 평가와 관련된 도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식은 타인의 평가와 관련된 명제들로 이루어지며, 위협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Ingram과 Kendall (1987)은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불안관련 도식들이 서로 무관한 인지적 구조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기는 하나, 기능적으로는 차별적인 인지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발표불안이 사회불안의 한가지 하위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들은 발표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발표불안 관련 자동적 사고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 중 불안유발적인 사고내용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경험적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SISST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 '자기비하' (Glass et al., 1982)와 '실패 예상 및 회피욕구' (조용래 등, 1997)는 전자와,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조용래 등, 1997; Glass et al., 1982)는 후자와 흡사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SISST와는 별도로 개발된 'Social Anxiety Thoughts Questionnaire'의 경우 '일반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부적절성에 대한 사고' 및 '자율신경계 각성과 수행불안에 대한 지각' 요인들은 전자와,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및 '불편증후를 타인이 자각하는 것에 대한 염려' 요인은 후자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겠다 (Hartman, 1984). 아울러, Stopa와 Clark (1993)은 사회공포증 집단의 자동적 사고 빈도를 다른 불안장애 집단 및 비환자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사회공포증 집단은 다른 두 집단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빈도가 일관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사고 재인법 (endorsement method), 사고 생산법 (production method), 사고 녹음법 (recording method) 및 사고 표집법 (sampling method) 등이 있

다 (Kendall & Hollon, 1981). 이 중에 사고 재인법과 사고 생산법이, 사회불안을 위시하여 우울증이나 일반적인 불안 등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자는 사회불안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 사고의 목록을 미리 제시해 준 다음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전, 하는 동안, 혹은 한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들에 대하여 그 빈도를 평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SISST와 같은 구조화된 질문지법(structured measures)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후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전, 하는 동안, 또는 한 후에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른 사고들을 모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고 열거법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들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사고 생산법은 사고 재인법에 비해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채점체계를 연구 주제에 맞추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집단으로 실시하기가 어렵고, 채점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사고 재인법은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여 피험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단위 연구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서 사고 생산법에 비해 더욱 민감하고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Glass & Furlong, 1990).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이론적 연구들 및 인지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연구들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발표불안과 관련된 구조화된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개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예비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동적 사고 리스트와 함께, 집단치료에 참가한 사회공포증 내담자

들의 자기보고에 기초하여 예비 문항들을 만들어 발표불안에 대한 예비적인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그 다음, 이 예비 질문지를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분명한 요인부하 패턴을 갖는 문항들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제작절차

첫 번째 단계로,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에 포함될 예비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집단인지치료 (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 또는 집단인지행동치료 (김은정, 1999; 조용래, 김학렬, 1999)에 참가한 35명의 내담자들이 숙제로 작성해 온 자동적 사고 기록지(automatic thought record)에서 발표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들을 선별하였다.

35명의 내담자들이 보고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140명 (남 102명, 여 3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 (조용래, 원호택, 1997; 최정훈, 이정운, 1994)를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대표적인 발표상황으로 분류된 5가지 상황들을 선정한 후, 피험자들에게 각 상황별로 사고열거법으로 자동적 사고들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자동적 사고란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표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증상들로 자동적 사고와 같은 인지증상 외에 신체증상과 행동증상이 혼히 나타난다는 점을 교육하였으며, 이러한 세가지 양상의 증상들을 서로 구별해서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대표적인 발표상황으로 알려진 5가지 상황, 즉 수업시간이나 공식적인 모임

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 (노래, 춤, 연구 등)을 하는 상황,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해야 하는 상황,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지명을 받아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모임에서 리더나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 등 (조용래, 원호택, 1997; 최정훈, 이정운, 1994)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3) 각 상황별로 본인이 불안을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회상하도록 한 후 “현재 자신이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와 같이 생생한 상상을 유도하기 위해 한가지 상황마다 약 5분 가량의 시간을 주었다.

4) 특정한 불안유발 상황에 대한 상상이 충분히 진전됨에 따라 바로 그 순간 머리 속에 반사적으로 떠오른 자동적 사고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축어록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였다. 5가지 상황별로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 후 자동적 사고 리스트를 수거하였다.

두 번째는 앞서 수집된 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는 단계였다. 연구자 외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2명이 이 평정작업에 참가하였다. 35명의 내담자들이 보고한 90개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중 내용상 다른 것과 중복되는 사고로 삼자가 합의한 32개를 제외한 후 58개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예비 조사연구에서 140명의 대학생들이 보고한 다수의 문항들 중 다른 사고와 분명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 내용이 부정적인 것, 그리고 상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의된 25개를 추가로 선정한 후 총 83개의 문항으로 된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최정훈, 이정운, 1994)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발표불안을 느끼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수업시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대표적인 발표상황으로 선정한 후, 본인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 다음, 각 문항별로 빈도를 5점 척도 (1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 5점: 아주 자주 떠올랐다)상에 평정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수록하였다. 설사 이와 같은 상황을 최근에 직접 경험하

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치 본인이 현재 그 상황에 실제로 처해 있는 것 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한 후 평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8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적인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다른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대 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 중인 415명 (남 270명, 여 145명)의 대학생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20세 (표준편차 2.86세) 였다.

결과 및 논의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선정 및 요인구조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83개의 문항에 대해 주축 요인분석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Scree 검사를 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7개가 나왔으나, 고유치의 하락 정도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해 준 후 다시 주축 분해법 및 사각회전법 (HKP=.4)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형태계수 (표준회귀계수)가 두개 이상의 요인들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들과, 한개의 요인에 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값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문항들을 포함한 총 38개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Floyd & Widaman, 1995). 아주 분명한 요인부하 패턴을 갖는 문항들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남은 45개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두가지 문항 제외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13개 문항을 추가로 제

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문항들을 예로 들면, ‘아, 또 실패하는 건가’ ‘내가 정확하게 또는 논리정연하게 말을 했는지 걱정된다’ ‘내가 당황한 모습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이 발표를 잘 해야 하는데 불안해 하다니 망쳤군’ ‘이 발표를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하실 텐데’ 등과, ‘내가 발표를 못하면 날 비웃거나 무시할 것 같다’ ‘저 애는 발표를 하는거야? 책을 읽는거야? 아! 지루해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발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두렵다’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긴장해 있는 것 같다’ ‘나는 완벽하게 이 발표를 잘 해내야 한다’ ‘내가 할 내용을 앞에서 다 해버리면 어떡하지’ 등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32개 문항에 대하여 주축분해법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은 3개가 나왔다. 그림 1은 32개의 문항에 대한 Scree 검사의 결과로서 각 요인의 고유치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해 주고 주축분해법 및 사각회전법(HKP=.4)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나온 요인구조계수(상관계수) 및 요인형태계수행렬, 요인 상관행렬 및 요인변량 퍼센트는 각각 표 1, 표 2 및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이름은 1차적으로는 요인구조계수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요인형태계수를 고려하여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였다. 요인 1은 ‘실수를 하면 교수님은 물론이고 다들 나를 바보 같은 학생이라고 할거야’ (문항 12), ‘내가 불안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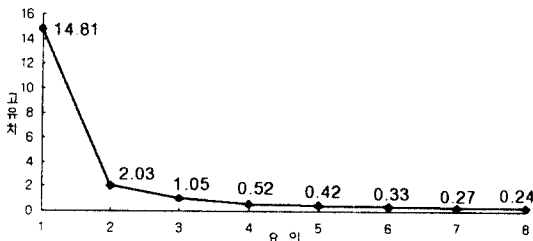


그림 1. 32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들의 고유치 (Scree검사).

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들이 나를 비웃고 다닐지도 몰라’ (문항 22) ‘말이 떨리고 불안해 하는 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할거야’ (문항 27) ‘저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문항 29) 등 13개의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 짐작’으로 이름붙였다. 요인 2는 ‘나는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문항 31), ‘이 발표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문항 25),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문항 28), ‘너무 긴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문항 21) 등 1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내가 발표를 하는데 분위기가 설렁해지면 어떡하지?’ (문항 4), ‘말을 조리있고 재미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렵다’ (문항 24),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문항 23), ‘내가 실수하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문항 20) 등 7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으로 해석되었다.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요인 1과 요인 2는 $r = .49$, 요인 2와 요인 3은 $r = .51$, 요인 1과 요인 3은 $r = .44$ 등을 보여 각 요인들간에 서로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을 제시한 표 2를 보면, 다른 요인들과 공유되지 않는 독자변량에서는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름붙여진 요인 1이 전체 변량의 23.12%로서 가장 큰 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요인 2, 그리고 요인 3의 순이었다. 공유변량은 요인 2, 요인 1, 요인 3 순이었다. 요인 2가 요인 1에 비해 공유변량이 더 큰 것은 요인 2가 다른 두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는 사실로부터 짐작될 수 있다. 문항 수가 가장 적은 요인 3은 다른 2개의 요인들에 비해 독자변량과 공유변량 모두 작았다.

요인모델의 부합도

SAATQ의 3 요인모델이 연구 1에서 수집된 자료

표 1. 연구 1과 연구 2에서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각 요인별 해당 문항의 구조계수

문항	연구 1	연구 2
요인 1: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		
12. 실수를 하면 교수님은 물론이고 다들 나를 바보같은 학생이라고 할거야.	.83 (.82)	.82(.80)
22. 내가 불안해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들이 나를 비웃고 다닐지도 몰라.	.81 (.73)	.78(.70)
27. 말이 떨리고 불안해 하는 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할거야.	.80 (.70)	.81(.66)
29. 저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78 (.67)	.78(.67)
18. 저 사람들이 날 바보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78 (.67)	.82(.71)
15. 내가 이 발표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날 바보스럽게 본다면 결국 난 혼자 가 되는게 아닐까?	.75 (.72)	.77(.72)
10. 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지 못했으니 나중에 이들을 대할 때 많이 힘들 거야.	.74 (.63)	.81(.73)
13. 내가 이 상황에서 불안해 한다면 이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거야.	.74 (.68)	.76(.73)
1. 발표를 잘 해내지 못하면 난 바보 취급당할 것이다.	.72 (.59)	.74(.59)
7. 저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할거야.	.70 (.53)	.72(.56)
5. 아마 내 말이 두서가 없어 날 우습게 볼거야.	.69 (.55)	.70(.51)
3. '재는 다른 것도 못하면서 발표도 제대로 못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거야.	.68 (.62)	.72(.67)
9. 뒤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은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거야.	.66 (.55)	.63(.44)
요인 2: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		
31. 나는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80 (.72)	.81(.72)
25. 이 발표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79 (.71)	.70(.61)
28.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79 (.70)	.72(.61)
21. 너무 긴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75 (.63)	.72(.61)
11. 앞에 나가면 또 목소리가 떨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큰일 이다.	.75 (.68)	.75(.69)
14.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막막하다.	.75 (.61)	.74(.66)
6. 다른 애들은 다 잘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73 (.56)	.77(.62)
2. 말이 왜 이렇게 안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71 (.58)	.73(.62)
19.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71 (.62)	.74(.68)
26. 이번 발표에 내가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다.	.71 (.67)	.64(.49)
17.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두렵다.	.69 (.54)	.70(.47)
30. 머리 속이 텅빈 것 같다.	.64 (.52)	.60(.39)
요인 3: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4. 내가 발표를 하는데 분위기가 설렁해지면 어떡하지?	.71 (.65)	.72(.60)
24. 말을 조리있고 재미있게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렵다.	.71 (.53)	.72(.58)
23.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68 (.48)	.66(.45)
20. 내가 실수하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67 (.53)	.67(.53)
16.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냐?	.62 (.58)	.62(.56)
8. 모두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59 (.51)	.58(.61)
32. 내가 이 발표를 잘해야 이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58 (.50)	.68(.67)

주: () 안의 수치는 형태계수를 나타냄.

표 2. 요인변량퍼센트

요인 1		요인 2		요인 3	
독자변량	공유변량	독자변량	공유변량	독자변량	공유변량
23.12	36.31	13.74	44.92	8.92	33.94

에 잘 부합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AS 6.04판의 최대우도법으로 TLI (Tucker-Lewis Index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를 구하였고, DOS용 프로그램인 FITMOD로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ECVI (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를 구하였다. 3 요인모델의 부합도를 1 요인모델, 2 요인모델, 4 요인모델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통상 TLI 값이 .90 이상일 경우 모델의 부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순목, 1995; 홍세희, 2000; Tucker & Lewis, 1973),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은 적절한 부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1 요인모델은 부합도가 나쁜 모델이었고, 2 요인모델은 다소 미흡한 모델이었다.

각 모델의 RMSEA 값을 검토해 본 결과, 1 요인모델은 여전히 나쁜 모델이었고 2 요인모델은 비교적 괜찮은 모델인데 비해,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은 부합도가 좋은 모델이었다.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다소 나은 부합도를 가지기는 하지만 90% 신뢰구간에 들어가는 값의 범위가 서로 겹쳐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러 요인모델들의 부합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교차타당도 지수 (ECVI)를 또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차타당도가 좋은 모델일수록 더 낮은 값을 갖는다는 점 (Hong & Cho, 1999)을 고려할 때,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이 다른 두가지 모델인 1 요인모델과 2 요인모델에 비해 더 좋은 모델로 판단되었다.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가지기는 하나, RMSEA 처럼 90% 신뢰구간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해 보였다.

요약하면, 각 모델의 부합도를 비교한 결과, 다른 두 모델들에 비해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은 적절한 부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부합도 지수가 다소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결과들과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요인모델은 연구 1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표 3. 연구 1에서 여러 요인모델들의 부합도 비교

부합도 지수	1 요인모델	2 요인모델	3 요인모델	4 요인모델
TLI	.774	.891	.926	.944
RMSEA	.097 (.093-.101)	.067 (.063-.072)	.055 (.051-.060)	.048 (.043-.053)
ECVI	5.769 (5.420-6.136)	3.456 (3.211-3.720)	2.808 (2.605-3.029)	2.514 (2.338-2.709)

주: 요인모델들의 부합도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수의 값을 소숫점 세자리 까지 표기함. () 안의 수치는 90% 신뢰구간에 속하는 값을 나타냄.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CVI = 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

연구 2.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32개 문항의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다른 척도들과 함께 다른 독립적인 집단에게 실시한 후, 이 질문지의 요인구조에 대한 교차타당도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77명(남 187, 여 90명)의 대학생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이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1.43세(표준편차 2.90세)였다.

측정도구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 (Speech Anxiety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SAATQ). 발표불안 동안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들도 함께 실시하였다.

발표상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 (Speech Situation Self-Statement Test: SSSST). 이 검사는 원래 Glass 등 (1982)이 역할연기 형식의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개인의 머리 속에 떠오른 자동적 사고들을 곧바로 측정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긍정적인 (촉진적인) 자동적 사고를 재는 15개 문항과 부정적인 (억제적인) 자동적 사고를 재는 15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 등 (1997)이 사회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및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판 SISST의

문항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를 발표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문항내용에서 필요할 경우 인칭대명사를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어서 개정판을 만들었다 (Turner & Beidel, 1985). 또한 개정판의 지시문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발표불안을 느끼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수업시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대표적인 발표상황으로 선정한 후, 본인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 다음, 각 문항별로 빈도를 5점 척도 (1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 5점: 아주 자주 떠올랐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최근에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치 본인이 현재 그 상황에 실제로 처해 있는 것 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한 후 각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발표불안척도 (Speech Anxiety Scale: SAS). 이 척도는 원래 Gilkinson (Leary, 1991에서 재인용)이 발표시간에 대학생들이 보고하는 사회적 공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104개 문항으로 개발했던 것을 실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Paul (1966)이 단축형으로 개정한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PRCS)를 조용래와 이민규 및 박상화 (1999)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검사이다. 이 도구는 발표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불안 증상들을 평가하는 30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30개의 문항 중 반은 "예", 그리고 나머지 반은 "아니오"라는 응답을 할 경우 발표불안이 있는 것으로 채점된다. 원판 PRCS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6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1 ($p < .001$)이었다. 또한 다른 발표불안척도와의 상관관계로 알아본 공존타당도 뿐만 아니라, 발표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고안된 실험적 처치에 민감한 것으로 밝혀져 구성타당도 역시 양호하였다.

한국판 SAS는, 문항분석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진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28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분포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응답방식을 진위형에서 Likert형의 5점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극히 그렇다)로 변형시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와 공존타당도는 높았고,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용래 등, 1999).

발표불안 위계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들 (조용래, 원호택, 1997; 최정훈, 이정운, 1994)을 토대로, 연구자가 대표적인 발표불안상황 5가지를 선정한 후, 각 상황별로 발표불안을 느끼는 정도, 회피하는 빈도 및 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염려하는 정도를 각각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법은 사회공포증에 대한 치료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정운, 최정훈, 1996; 조용래, 1998; Hope, Heimberg, & Bruch, 1995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표불안 위계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2였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 ($p < .001$)이었다.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Fear of Negative Evaluation-Brief: Brief FNE).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인지내용으로 알려진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FN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 (1969)가 원래 30개의 문항으로 제작한 것에서 Leary (1983)가 전체 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12개의 문항들만 뽑아서 만든 단축형 척도를 이정운과 최정훈 (1997)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다. 원래 진위형으로 되어 있는 척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변화에 보다 민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2점에서 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단축형 FNE 척도는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가 .90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p < .001$)였다. 이정운과 최정훈 (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의 경우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반분신뢰도는 .93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

80 ($p < .001$)이었다.

역기능적 신념 검사 (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 이 검사는 조용래와 원호택 (1999)이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취약성변인으로 알려진 역기능적 신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총 7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검사자로 하여금 각 문항들이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나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7점 척도 [1점: 전혀 일치 (동의)하지 않는다, 4점: 중간이다, 7점: 전적으로 일치 (동의)한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세가지 하위척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의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체 점수와 세가지 하위척도 점수들이 산출될 수 있다. 전체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는 57번 문항의 채점방향을 고려하여 역산한 후 나머지 69개 문항들의 점수와 합산한 전체 점수로 산출된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0 ~ .95, 반분신뢰도는 .91 ~ .96, 그리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 ~ .83 ($p < .001$)이었으며, 구성타당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용래, 원호택, 1999).

Beck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검사는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 (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 (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p < .001$)였다.

분석방법

SAAT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① SAATQ의 요인구조가 척도개발에 참여한 집단과는 독립된 다른 집단 (= 교차타당화 집단)에서도 교차타당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교차타당화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요인행렬을 비교하는 일치계수 (coefficient of congruence)를 DOS용의 COMCOG

프로그램으로 구하였다 (이순목, 엄진섭, 1994; Floyd & Widaman, 1995).

② 각 문항별로 해당 문항을 뺀 전체 척도점수 및 각 하위 척도점수와의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들을 산출함으로써 SAATQ의 문항변별도를 검토하였다 (남기덕, 1998; 이순목, 1992; Anastasi, 1988).

③ SAATQ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반분신뢰도 및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대상 277명 중 116명의 대학생들에게 SAATQ를 2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한 후 산출하였다.

④ SAATQ의 공존타당도는 발표상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 (SSSST)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⑤ SAATQ의 구성타당도는, 한국판 발표불안척도 (SAS), 발표불안 위계표, 단축형 FNE, 그리고 역기능적 신념검사 (DBT) 등과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각각 구하여 확인하였다. SAATQ의 변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Beck 우울척도 (BDI)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및 부분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각각 구하였다.

결과 및 논의

요인구조와 교차타당화

요인구조

새로운 표본인 277명이 SAATQ에 반응한 자료에 대하여 주축분해법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은 3개가 추출되었다. Scree 검사 및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SAATQ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3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해 주고 주축분해법 및 사각회전법 (HKP=.4)으로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나온 요인구조계수 및 요인형태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비교할 때, 문항들의 구조계수의 순서는 다소 차이 있지만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두 연구에서 동일하였다. 즉 요인 1은 문항 18 등 13개의 문항이, 요인 2는 문항 31 등 12개의 문항이, 그리고 요인 3은 문항 4 등 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의 요인들은 각각 다른 요인들과 대체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²⁾. 그리고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을 구한 결과³⁾, 독자변량은 요인 1, 요인 2, 요인 3의 순이었으며, 공유변량은 요인 2, 요인 1, 요인 3 순으로 컸다. 이 결과들 역시 연구 1에서 보인 양상과 동일하였다.

요인모델의 부합도

SAATQ의 3 요인모델이 연구 2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LI (또는 NNFI), RMSEA 및 ECVI를 구하였다. 3 요인모델의 부합도를 1 요인모델, 2 요인모델, 4 요인모델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TLI 값으로 각 요인모델의 부합도를 검토한 결과,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은 적절한 부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1 요인모델은 부합도가 나쁜 모델이었고, 2 요인모델은 다소 미흡한 모델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각 모델의 RMSEA 값을 살펴본 결과, 1 요인모델은 여전히 나쁜 모델이었고 2 요인모델은 비교적 괜찮은 모델인데 비해,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은 부합도가 좋은 모델이었다.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다소 나은 부합도를 가지기는 하지만 90% 신뢰구간에 들어가는 값의 범위가 서로 겹쳐 있

2)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계수는 $r = .52$, 요인 2와 요인 3의 상관계수는 $r = .48$, 그리고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계수는 $r = .39$ 였다.

3) 독자변량의 경우 요인 1은 22.19%, 요인 2는 16.56%, 요인 3은 11.07%였으며, 공유변량의 경우 요인 1은 36.13%, 요인 2는 40.39%, 요인 3은 28.80%였다.

표 4. 연구 2에서 여러 요인모델들의 부합도 비교

부합도 지수	1 요인모델	2 요인모델	3 요인모델	4 요인모델
TLI	.775	.873	.922	.942
RMSEA	.098 (.093-.103)	.073 (.068-.079)	.057 (.051-.063)	.049 (.043-.056)
ECVI	6.578 (6.137-7.046)	4.586 (4.251-4.950)	3.686 (3.416-3.984)	3.386 (3.150-3.650)

주: 요인모델들의 부합도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수의 값을 소숫점 세자리 까지 표기함. () 안의 수치는 90% 신뢰구간에 속하는 값을 나타냄.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CVI = 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

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요인모델들의 부합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ECV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이 다른 두가지 모델인 1 요인모델 및 2 요인모델에 비해 더 좋은 모델로 판단되었다.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가지기는 하나, RMSEA 처럼 90% 신뢰구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 차이는 미미해 보였다.

요약하면, 부합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두 모델들에 비해 3 요인모델과 4 요인모델이 적절한 부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4 요인모델이 3 요인모델에 비해 부합도 지수가 다소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부합도와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3 요인모델은 연구 2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교차타당화

척도개발 집단 (연구 1)에서 추출된 SAATQ의 요인행렬이 다른 독립적인 집단 (연구 2)에 교차타당화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의 요인형태계수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일치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99, 요인 2는 .98, 그리고 요인 3은 .95의 일치계수를 보였다. 일치계수가 .94 이상일 경우 두 집단의 요인구조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순목, 1995), SAATQ의 3개 요인 모두

교차타당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4 요인모델의 경우 각 요인들의 일치계수는 .98, .86, .94, .86으로서 4개 요인 중 2개의 요인이 기준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4 요인모델은 교차타당화되지 못했다.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

각 문항별로 해당 문항을 뺀 전체 척도점수 및 각 하위 척도점수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SAATQ의 문항변별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척도의 경우 문항 8이 $r = .38$ ($p < .001$), 문항 16과 32 모두 $r = .50$ ($p < .001$)이었고, 나머지 다른 문항들은 $r = .61 \sim .78$ ($p < .001$)의 범위에 속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끼리 각 하위 척도를 구성한 후 하위 척도별로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척도 1은 $r = .66 \sim .83$ ($p < .001$), 척도 2는 $r = .63 \sim .78$ ($p < .001$), 척도 3은 $r = .50 \sim .68$ ($p < .001$)이었다. 이 결과들로 보아 SAATQ의 문항들은 모두 전체 척도 또는 각 하위 척도와 상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문항변별도가 양호하다고 하겠다.

신뢰도

SAATQ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6, 반분신뢰도는 .94 ($p < .001$), 그리고 116명의 대학생 자료로부터 산출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 ($p < .001$)이었다. 각 하위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구한 결과, 척도 1은 .95, 척도 2는 .93, 그리고 척도 3은 .85였다. 따라서 SAATQ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척도임을 알 수 있다.

타당도

SAATQ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불안과 관련된 구성개념을 재는 다른 척도들과 SAATQ가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대학생이 보인 SAATQ의 총점 평균은 70.47점이고, 표준편차는 21.96점이었다.

공존타당도

먼저, 선행 연구들 (Turner & Biedel, 1985; Turner et al., 1986)에서 발표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SSSST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SSSST 총점과 SAATQ 전체 점수는 $r = .71$ ($p < .001$), SAATQ의 하위 척도 1은 $r = .66$ ($p < .001$), 척도 2는 $r = .77$ ($p < .001$), 척도 3은 $r = .42$ ($p < .001$)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SSSST의 부정형 척도와의 상관이 매우 높았다 (각각 순서대로, $r = .90$, $p < .001$; $r = .84$, $p < .001$; $r = .84$, $p < .001$; $r = .68$, $p < .001$). 따라서 SAATQ는

SSSST의 전체 점수와 부정형 하위 척도점수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공존타당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다.

한편, SAATQ와 SSSST의 긍정형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SAATQ 전체 척도 및 세가지 하위 척도 모두 대체로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SAATQ의 척도 3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각각 순서대로, $r = -.25$, $p < .001$; $r = -.21$, $p < .01$; $r = .37$, $p < .001$; $r = .02$, ns). SAATQ가 SSSST 긍정형과 낮은 상관을 보인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SSSST 긍정형이 다른 사회불안 관련 척도들과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지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SSSST의 긍정형은 동일한 검사의 다른 하위척도인 부정형과 $r = -.25$ ($p < .001$)로서 SAATQ와 동일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SSSST 긍정형은 발표불안척도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 ($r = -.63$, $p < .001$)을 보였는데 비해, 발표불안 위계표와는 유의하지는 했으나 낮은 상관 ($r = -.34$, $p < .001$)을, 그리고 단축형 FNE와의 상관 ($r = -.03$, ns)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앞으로의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발표불안과의 관계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과, 그 결과 발표불안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추후에 발표상황에서 떠오르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들로 긍정형 척도를 따로 만들거나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 5. SAATQ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들과의 상관계수

척도명	평균	표준편차	SSSST	SAS	위계표	FNE	DBT	BDI
SAATQ1	22.48	9.22	.66***	.56***	.61***	.44***	.53***	.29***
SAATQ2	29.63	9.79	.77***	.81***	.74***	.50***	.50***	.34***
SAATQ3	18.36	5.39	.42***	.44***	.59***	.60***	.51***	.25***
SAATQ total	70.47	21.96	.73***	.71***	.73***	.55***	.57***	.34***

주: SAATQ =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 SSSST = 발표상황에 대한 자기진술검사; SAS = 발표불안척도; 위계표 = 발표불안 위계표; FNE =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DBT = 역기능적 신념 검사; BDI = Beck 우울척도.

*** $p < .001$.

구성타당도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이론 (Beck, Emery, & Greenberg, 1985; Ingram & Kendall, 1987 참조)에 입각하여, 다른 사회불안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SAATQ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SAATQ는 한국판 발표불안척도 (SAS)와 $r = .71$ ($p < .001$)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세가지 하위 척도들 모두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척도 1은 $r = .56$ ($p < .001$), 척도 2는 $r = .81$ ($p < .001$), 그리고 척도 3은 $r = .44$ ($p < .001$)이었다. 또한 발표불안 위계표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척도는 $r = .73$ ($p < .001$), 척도 1은 $r = .61$ ($p < .001$), 척도 2는 $r = .74$ ($p < .001$), 그리고 척도 3은 $r = .59$ ($p < .001$)로서 발표불안 위계표와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발표불안을 비롯한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인지내용으로 알려진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성향을 측정하는 단축형 FNE와 SAATQ 전체 척도는 $r = .55$ ($p < .001$), 척도 1은 $r = .44$ ($p < .001$), 척도 2는 $r = .50$ ($p < .001$), 그리고 척도 3은 $r = .60$ ($p < .001$) 등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불안과 관련된 인지적 도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적응적인 신념의 정도를 평가하는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SAATQ 전체 척도는 $r = .57$ ($p < .001$), 척도 1은 $r = .53$ ($p < .001$), 척도 2는 $r = .50$ ($p < .001$), 그리고 척도 3은 $r = .51$ ($p < .001$) 등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요인분석 결과들과 함께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들은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이론 (Beck et al., 1985; Ingram & Kendall, 1987 참조)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SAATQ의 구성타당도가 매우 양호함을 시사해 준다.

변별타당도

다음으로, 구성타당도의 일종인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AATQ와 SAS 및 BDI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발표불안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우울의 정도를 재는 한국판 BDI와의 Pearson 상관계수 및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다. SAATQ는 BDI

와 $r = .34$ ($p < .001$)로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두가지 척도간의 유의한 상관은, 원래 우울과 발표불안 간의 상관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BDI는 SAS와 $r = .37$ ($p < .001$)로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도 SAATQ와 BDI간의 상관이 여전히 유의한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AS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BDI와 SAATQ간의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BDI는 SAATQ와의 부분상관이 $partial r = .11$ 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BDI를 통제변인으로 했을 경우에, SAATQ는 SAS와 $partial r = .67$ ($p < .001$)로서 여전히 높은 부분상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인 양상은 SAATQ의 세가지 하위 척도들 모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SAATQ는 우울의 정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비해 발표불안에 특정한 자동적 사고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변별타당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종합 논의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이론 및 실제에는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 (Clark, 1988)에 입각하여, 발표불안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두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집단치료에 참여한 사회공포증 내담자들과 예비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보고한 발표불안 관련 자동적 사고 목록들로부터 8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 문항들로 구성된 예비 질문지를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요인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32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문지 (SAATQ)'를 개발하였다. 다른 대학생 집단을 사용한 두 번째 연구 결과들은 이 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에 대한 교차타당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SAATQ는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등 3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합도 및 모델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대안적인 모델들과 비교할 때 3 요인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들은 척도개발 집단과 다른 독립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으며, 특히 3개의 요인 모두 일치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3 요인모델의 교차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이 결과들은 SAATQ가 적어도 대학생들 집단들에서는 일관되게 3 요인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발표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의 경우 본 연구에서 예비 문항을 선정하는데 기초가 된 집단치료의 자료들 (김은경, 1999; 조용래, 김학렬, 1999; 조용래 등, 2000)을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발표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이나 또는 일반 대학생들이 보고한 경험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선행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발표불안이 사회불안의 한가지 하위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ISST의 경우,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SISST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실패 예상 및 회피욕구' 등과,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효능감',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그리고 '합리적 대처' 등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용래 등, 1997), 이러한 1차 요인들은 각각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앞의 두가지)'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 (뒤의 세가지)'라는 2차 요인들에 높게 부하되는 위계적인 요인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Hong & Cho, 1999). 그리고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SISST가 '자기비하', '긍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 그리고 '대처' 등의 4개 요인 (Glass et al., 1982), 또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 등 2개의 요인 (Osman, Markway, & Osman,

1992)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SISST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은 SAATQ에서 대체적으로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 요인과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요인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며, SISST의 '자기비하' 또는 '실패 예상 및 회피욕구' 요인은 SAATQ의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 요인과 흡사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들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이에 더해, Stopa와 Clark (1993)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부정적인 자기평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적 사고, 대처전략 및 행동계획에 대한 사고, 그리고 회피 또는 도피에 대한 사고 등 5가지 범주로 나누고, 사회공포증 집단의 자동적 사고 빈도를 다른 불안장애 집단 및 비환자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공포증 집단은 다른 두 집단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빈도가 일관되게 높았던 반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고'나 '회피에 대한 사고'는 뚜렷하거나 일관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Hartman (1984)은 SISST와는 별도로 'Social Anxiety Thoughts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는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감과 사회적 부적절성에 대한 사고', '불편증후를 타인이 자각하는 것에 대한 염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율신경계 각성과 수행불안에 대한 지각' 등의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들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자기평가' 및 '회피적 사고'와, '일반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부적절성에 대한 사고' 및 '자율신경계 각성과 수행불안에 대한 지각' 요인들은 SAATQ의 '자책 및 낮은 자기효능감' 요인과 내용상 비교적 유사해 보이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과 '불편증후를 타인이 자각하는 것에 대한 염려' 요인은 SAATQ의 '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과 '완벽추구 및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요인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SAATQ의 3개의 요인들 중 '자책 및 낮은 자기효

능감' 요인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칭중의 무시와 조소에 대한 지레짐작'과 '완벽추구 및 칭중의 반응에 대한 의문' 요인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사고'와 비교적 흡사하다는 사실은 불안장애의 독특한 특징들을 소개한 인지이론 (Ingram & Kendall, 1987)과 일치한다.

SAATQ를 구성하고 있는 32개 문항들의 내용과 문장구성을 살펴보면, 불안장애에 독특한 인지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상황 및 앞으로 닥칠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ngram과 Kendall (1987)은 불안장애에 비교적 독특한 결정적인 특징들로, 앞서 소개했던 도식의 내용과 기능 외에도, 임박한 미래 사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시간적 왜곡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할 정도로 미래를 강조하는 특징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Beck (1967)이 우울증에서 기술한 자동적 사고과정과 유사한 '자동적 의문 (automatic questioning)' 과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울증과 연관된 자동적 사고들은 분명한 결론과 평서문의 형태 (예: "나는 실패자다", "사정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를 띠는 반면에, 그들이 불안 관련 자동적 의문이라고 제안한 데에서는 내면적 대화 (internal dialogue)⁴가 주로 주어진 상황 또는 임박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예: "그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을 잘 헤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불안과 연관된 자동적 사고들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Anxious Self-Statements Questionnaire (ASSQ)' (Kwon, 1992; Kendall & Hollon, 1989)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SAATQ은 3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3 요인모델은 부합도와 교차타당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그 뿐 아니라, 요인의 내용이 불안관련 도식

과 잘 부합되며, SAATQ의 문항들이 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의문문으로 일부 구성되어 있어 불안장애의 독특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은, SAATQ가 사회불안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척도들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며, 우울의 정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반면 발표불안과 독특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들과 함께, SAATQ의 구성 타당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척도개발과정에서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점, 신뢰도가 매우 높고 문항의 변별도가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다른 검사와 높은 상관을 보여 공존타당도가 입증되었다는 점 등은 SAATQ가 발표불안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연구 및 치료에서 SAATQ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 하겠다. 먼저, 신뢰도와, 내용, 공존 및 구성타당도가 경험적으로 입증된 SAATQ는 앞으로 인지적 입장에서 발표불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검사를 사용함으로써, 발표불안의 발생, 지속 및 변화과정에서 자동적 사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 (Kwon, 1992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불안 일반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인지적인 모델이 상정되어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 및 역기능적 신념의 차별적인 역할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조용래, 1999). 만약 SAATQ를 사용하여 발표불안의 발생, 유지 및 변화과정에 대한 자동적 사고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게 되면, 사회불안 일반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한 가지 하위 유형인 발표불안에도 일반화했다는 점, 더 나아가 인지적 모델의 확장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특정한 정신병리 또는 심리적 장애는 주로 그 인지적 내용

4) 자동적 사고의 다른 이름으로서, 앞서 기술한 우울증에서의 자동적 사고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ngram과 Kendall (1987)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지적 내용-특정성 가설' (Beck, Brown, Steer, Eidelson, & Riskind, 1987; Bruch, Mattia, Heimberg, & Holt, 1993; Greenberg & Beck, 1989; Laurent & Stark, 1993)을 상정하고 있는데, SAATQ를 사용함으로써 이 가설이 발표불안에 적용되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발표불안과 우울을 자동적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고유한 인지내용과 공유된 인지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Ingram & Kendall, 1987).

뿐만 아니라, SAATQ를 임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인지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의 초기에 발표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지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 질문지 등을 사용해서 치료 전에 내담자의 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반응내용은 특정 내담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내용을 결정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적 사고 질문지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가 다른 형태의 치료에 비해 발표불안의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개발 과정과는 달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나 임상 환자군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들이 반복검증되는지를 추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SAATQ는 발표불안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들뿐만 아니라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표상황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들로 이루어진 척도를 따로 만들거나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발표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AATQ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SAATQ는 발표불안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라는 점에서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들, 예컨대 사고 열거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남기덕 (1998). 통계분석적 고려사항.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한국심리학회 편) (pp.48-91).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순목 (1992). 문항분석과 검사타당화.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한국심리학회 편) (pp. 45-129). 제 10회 동계연수회 자료집.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순목, 엄진섭 (1994). COMCOG.EXE: 요인분석의 일치계수 계산을 위한 DOS용 프로그램.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정운, 최정훈 (1996).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96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83-598.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조용래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65-178.
-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II):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 한국판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33-249.
- 조용래, 김학렬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집단인지 행동치료의 효과에 관한 예비 연구. *조선대학교 의대 논문집*, 24, 165-179.
- 조용래, 원호택 (1997).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
- 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 사회공포증에 대한 집단인지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81-206.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 21-4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rnkoff, D. B., & Glass, C. R. (1989). Cognitive assessment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61-7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utilizing the Cognition Checklis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606.
- Bruch, M. A., Mattia, J. I., Heimberg, R. J., & Holt, C. S. (1993). Cognitive specificity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upporting evidence and qualifications due to affective confound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1-21.
- Clark, D. A. (1988). The validity of measures of cogni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20.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s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Fremouw, W. J., & Breitenstein, J. L. (1990). Speech anxiety.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455-474). N. Y.: Plenum Press.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lass, C. R., Merluzzi, T. V., Biever, J. L., & Larsen, K. H. (1982).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7-55.
- Greenberg, M. S., & Beck, A. T. (1989). Depression and anxiety: A test of th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9-13.
- Hartman, L. (1984). Cognitive components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137-139.
- Heimberg, R. G. (1994). Cognitive assessment strategies and the measurement of outcome of treatment for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269-280.
- Heimberg, R. G., Hope, D. A., Dodge, C. S., & Becker, R. E. (1990). DSM-III-R subtypes of social phobia: Comparison of generalized social phobics and public speaking phobic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172-179.

- Hofman, S. G., & Roth, W. T. (1995). *A brief questionnaire to measure negative thoughts related to public speaking: The Cognition During the Talk Scale*. Poster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 Hong, S., & Cho, Y. (1998). Latent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Psychological Reports, 84*, 1303-1314.
- Hope, D. A., Heimberg, R. G., & Bruch, M. A. (1995). Dismantling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637-650.
- Ingram, R. E., & Kendall, P. C. (1986). Cognitive clinical psychology: Implications of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R. E. Ingram (Ed.),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es to clinical psychology*. Orland, Florida: Academic Press.
-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Kendall, P. C. (1981). Assessment and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Purposes, proposals, and problems. In P. C. Kendall & S. D. Hollon (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pp.59-84). New York: Academic Press.
- Kendall, P. C., & Hollon, S. D. (1981). Assessing self-referent speech: Methods in measurement of self-statements. In P. C. Kendall & S. D. Hollon (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pp.85-118). New York: Academic Press.
- Kendall, P. C., & Hollon, S. D. (1989). Anxious self-talk: Development of the Anxious Self-Statements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81-93.
- Kwon, S.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Queensland, Australia.
- Laurent, J., & Stark, K. D. (1993). Testing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with anxious and depressed youngs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26-237.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6.
- Leary, M. R. (1991). Social anxiety, shyness, and related constructs. In J. P. Robinson, P. R. Sc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161-194). New York: Academic Press.
- Osman, A., Markway, K., & Osman, J. R. (199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in a college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71*, 1171-1177.
- Paul, G. L. (196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55-267.
- Tur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Turner, S. M., & Beidel, D. C. (1985). Empirically derived subtypes of social anxiety. *Behavior Therapy, 16*, 384-392.
- Tur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Keys, D. J. (1986).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 and comparison to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389-394.
- Turner, S. M., Beidel, D. C., & Larkin, K. T. (1986).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ocial anxiety in clinic and nonclinic samples: Physiological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23-527.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26-331.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Zweig, D. R., & Brown, S. D. (1985).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written stimulus presentation format for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285-295.
- 원고접수일 2000. 5. 8
수정원고접수일 2000. 6. 5
게재결정일 2000. 6. 5 ■

Cognitive Assessment of Speech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Yongrae Cho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Based on the view that assessment of automatic thoughts is integral to cognitive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pathology, the present studies were undertaken to develop the Speech Anxiety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SAATQ)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tudy 1, a total of 83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ere drawn from thought listings reported by social phobic clients and pilot subjects while experiencing speech anxiety, and then 32 items (SAATQ-32) were finally selected on the basis of factor analyses in twice on 415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ses to the 83-item SAATQ. The SAATQ-32 had three factors labeled 'Guess of Audience Slight and Ridicule, Self-Reproach and Lowered Self-Efficacy, and Perfection Seeking and Question of Audience Responses', and the three-factor model was thought to be the best model in terms of goodness-of-fit and model interpretation. In study 2, all three factors had high values for the coefficient of congruence which assesses the similarity of factor pattern coefficients across two independent samples. Therefore, the three-factor model was cross-validated. On the contrary, the four-factor model wasn't cross-validated since two of four factors hadn't high congruence values. The SAATQ-32 wa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split-half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nd it had good concurrent, construct, and discriminant validities. In conclusion, the SAATQ-32 appears to be a highly reliable, valid measure to asses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ssociated with speech anxiety. Lastly, both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i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SAATQ-32 in the cognitive study and treatment of speech anxiety were discussed.